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8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민주세력 대통합 후 안원장 껴안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는 3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후 당의 단합은 물론 개혁·진보세력의 대통합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철수 교수를 껴안고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물리쳐 3기 민주 정부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민심과 함께 3기 민주정부 창출에 나서겠다며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했다.

광주일보의 문 후보에 대한 인터뷰는 일정상 서면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돼야하는 당위성과 비전은.

▲ 학생운동, 인권변호사 활동 등을 하며 평생을 정의와 약자 편에 선 것은 물론 민주주의에 헌신해 왔다. 여기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한다. 문재인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개혁세력을 통합하는 한편, 안철수를 껴안고 박근혜에 맞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차기 정부의 최대 국정 현안은 무엇이라 보는지.

▲ 일자리 창출로 생각한다. 점권을 창출한다면 포용, 창조, 생태, 협력적 성장 등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단순히 숫자 놀음이 아닌 최저 임금, 사회 보험, 근로 기준 등 3대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 비정규직이 차별 받는 상황도 확 바꿔나가겠다.

-대선 예비 후보로 제시할 대표적 정책은.

▲ 특권의 카르텔을 깨고 국민의 눈높이와 함께하는 동행의 정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자리 혁명,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견인하는 강한 복지국가 건설, 함께 잘 살 수 있는 경제 민주화 질서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의 이미지와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 비정규직 증가와 양극화 심화 등 참여정부가 국민적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 점권을 넘겨준 것도 너무나 빠아프고 송구스럽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은 오히려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치 신인임에도 당내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한 원동력을 분석한다면.

▲ 국민이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기성 정치에 물들지 않아.

이번 대선 과거와 미래, 불통과 소통 한판 승부

참여정부 시절 호남 인사 중용 노력 기울였다

은데다 참여정부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겠다는 기대와 희망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호남 인맥 배제의 주역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 사실과 다르다. 참여정부 시절 많은 호남 인사들이 중용됐으며 노력도 기울였다. 호남 최초의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 국정원장, 법무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수석, 참여수석 등 많은 요직을 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호남에서 참여정부에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은 당시 여러 분야에 세심함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며 사과드린다.

-안철수 원장과 후보단일화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 우선, 민주당 경선에서 미래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압도적 지지를 받아 승리할 것이다. 이후, 민주당 대선 주자로서 민주당의 단합과 민주·개혁 진영의 통합을 이뤄 나가면 국민적 지지가 일어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안 교수와의 단일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안 교수에게 제시한 공동정부론은 아직도 유효한가.

▲ 안 교수도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 가치와 지향점도 유사하다. 많은 국민이 안 교수와 힘을 합쳐 정권 교체를 이루기를 희망하고 있다.

공동정부론은 이 같은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저의 의지다. 안 교수와의 단일화는 국민에 대한 도리다. 안 교수를 포함한 민주개혁세력 전체를 이끌어야 하며 그렇게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 안 교수와의 연대는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집권 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박 후보는 5·16 쿠데타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퇴행적 역사 인식과 시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저와 안 원장의 지지율을 합치면 박 후보를 앞선다. 이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박 후보는 지지율 확장의 한계에 직면했으며 사실상 대세론은 소멸됐다.

-박 후보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 이번 대선은 과거 세력과 미래 세력, 불통과 소통의 한 판 승부가 될 것이다. 미래 비전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 희망과 믿음을 주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저는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의 책임자다. 최근 시민의 정책 제안인 ‘국민의 명령 1호’가 1000건을 넘어서는 듯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저는 약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민주적 가치와 정신을 온몸으로 실현해 왔다. 시대정신인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

박 후보는 5·16 쿠데타를 ‘불가피한 선택’

이라고 주장하는 퇴행적 역사 인식과 시대

에 대한 오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이 승리할 것이다.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 지금의 통합진보당의 상황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려운 연대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민주, 복지, 평화의 가치를 중심에 둔 연대가 아니라면, 국민이 그 연대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고, 시너지 효과도 없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기를 기대했는데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된다.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해 내놓을 공약과 비전은.

▲ 광주와 전남은 민주화와 민주 정부의 자랑스러운 성지다. 하지만 경제적 낙후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미 지난달 20일 광주의 상품선물거래소 유치, 환경 선도도시 육성과 전남의 해양·관광산업 집중 지원 등 ‘활력 광주, 역동 전남’을 위한 8대 특별 정책 제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을 민주·인권·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제3기 민주 정부 수립은 호남의 선택에 달렸다. 그리고 3기 민주 정부는 호남의 뜻을 엊지 않고 진심으로 보답하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인권변호사 출신 참여정부 비서실장 역임

■ 걸어온 길

문재인 후보는 1953년 거제에서 태어나 경남중·고를 거쳐 경희대에 입학했다. 1975년 학생회 총무부장이었던 문 후보는 그해 4월 대규모 시위를 이끌면서 구속·수감됐다.

학교에서도 대체로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1978년 재 대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뒤늦게 사시를 준비해 이듬해 1차에 합격했으며 1980년 복학 후 2차에 합격했다.

문 후보는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지만 시위 전력 때문에 판사 임용이 좌절됐다. 그때 사시 동기인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개로 변호사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다. 둘은 합동법률사무

소를 운영했다. 그러다가 노 전 대통령은 국회로 갔으며 문 후보는 부산에서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문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비서실장 등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로 돌아간 문 후보는 2009년 5월 29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 ‘미안해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는 유서를 남긴 벗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지난 4·11총선 때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10년 부산시장 출마를 거부하는 등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지만 마치 ‘운명’처럼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담쟁이포럼’ 대표적… 정치권 인맥 親盧 주축

■ 문재인의 사람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부 인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외곽조직 ‘담쟁이포럼’의 구성원이 대표적이다. 이사장은 한완상 노무현재단 고문이, 연구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장을 지낸 경북 대 이정우 교수다.

운영위원회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내고 노무현재단기획위원으로 있는 김경수 의원과 서훈 전 국정원 차장, 유시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선임됐다.

학자로는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 서울대 조홍식, 고려대 조대열, 한림대 성경룡, 경희대 박명관, 세종대 김수현 교수 등이, 고지영

소설가와 안도현·김용택 시인 등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문 후보의 정치권 인맥도 친노 그룹이 주축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든든한 힘이며 백원우 전 의원과 함께 서영교·김현 의원 등 친노 직계 전·현직 의원 수십 명도 우군이다.

여기에 문 고문의 자서전 ‘운명’의 집필에 참여했던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봉하재단 사무국장,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 윤경영씨도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할 인물들이다.

광주·전남지역 인사로는 동교동계의 김옥수 전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차지한 김경수 의원과 서훈 전 국정원 차장, 유시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선임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근린 주택

▷ 서구 풍암동 2층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 2182㎡ 건물440㎡ 경정가4억2천2백 천 최저가2억9천5백

단독 주택

▷ 서구 능성동 2층주거 2층단독주택 대지 158㎡ 건물150㎡ 경정가1억7천7백 천 최저가1억2천4백

▷ 동구 지산동 주거지역 2층단독주택 대지 165㎡ 건물172㎡ 경정가1억1천5백 천 최저가1억8천

▷ 회순 능수면 2층주거 2층단독주택 대지 400㎡ 건물230㎡ 경정가1억2천2백 천 최저가1억7천7백

▷ 장성 황룡면 관리지역 단독주택 대지 823㎡ 건물235㎡ 경정가1억1천 천 최저가7천8백

공장

▷ 북구 용진동 대지 2315㎡ 건물1543㎡ 경정가22억7천4백 천 최저가18억2천

▷ 장성 동화면 대지 6300㎡ 건물1365㎡ 경정가14억2천2백 천 최저가6억3천5백

토지 매매

▷ 동구 내남동 도심근교 주거지역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 최상 대지750㎡

▷ 무안 해제면 계획관리지역 마을내 전망 좋은 전1243㎡ 임야2400㎡

문의 010-4911-4989 (062-268-8949)

탑공인중개사

(서구 광천동 650-205 대립8-편한세상아파트 후문)

광주전역 원룸 매매 전문

서·광산·남·북·동구지역 급매물건 디량화보

①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5층신축, 토지235㎡, 건물685㎡, 사무실, 원룸4개, 투룸6개, 최고급인증, 매도10억5천만원 (보1억/월500, 용2억)

② 상동동, 역세권, 신축4층, 원룸25, 토지131㎡, 건물660㎡, 매도9억5천만원/보6000/월950. 용1억/월(리레비네리 수익률13%추가)

③ 금암동, 막사동, 4층, 원룸13개, 토지231㎡, 371㎡, 매도5억8천만원/보1억2천/월300. 원룸, 용1억7천)

④ 유종동, 4층, 토지143㎡, 건물10㎡, 원룸12투룸5㎡, 매8억(2억/650, 용2억)

⑤ 내방동, 4층, 토지143㎡, 건물772㎡, 원집, 원룸30쓰리룸1㎡, 매7억(보4000/월300. 용3억)

⑥ 능성동, 신축4층, 토지142㎡, 건물600㎡, 원투룸17㎡, 쓰리룸5㎡, 매8억(천만원/보7000/월600)

⑦ 신이동, 신축4층, 토지264㎡, 건물500㎡, 원투룸9㎡, 매7억7천/보15000만원/월500. 용3억)

⑧ 운암동, 토지90㎡, 건물422㎡, 원집, 원룸14개, 매7억2천만원/보5000/월510. 용3억)

⑨ 신장동, 신축4층, 280㎡, 건물415㎡, 원투룸19㎡, 매6억2천만원/보7000/월400. 용15000)

⑩ 신기동, 토지133㎡, 건물455㎡, 원투룸18㎡, 매6억2천만원/보5000/월610. 용2억) 수익률13%

⑪ 화정동, 4층, 토지131㎡, 건물377㎡, 원투룸18㎡, 매6억2천만원/보5000/월610. 용2억) 수익률13%

⑫ 상동동, 4층, 토지270㎡, 건물495㎡, 원투룸24㎡, 매6억2천만원/보5000/월700)